

## 신라 중고기 僧職의 설치와 僧團\*

신선혜\*\*

- I. 머리말
- II. 僧職의 발생과 역할
- III. 僧官의 설치와 大德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新羅 中古期 佛敎敎團 연구」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음.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fresh707\_99@hanmail.net

## 요약문

신라 중고기 僧團의 양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僧官이 僧團 뿐 만 아니라 왕실과 교단의 관계, 불교 弘通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신라 불교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련의 僧官 임명의 사례 이외에도 기록에 보이는 승직들을 승관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진흥왕대 승관 임명을 전후하여 보면, 실상 신라 불교계에서 非僧官 승려 역시 두드러지는 활동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非僧官 승려는 소지왕대 內殿焚修僧, 법흥왕·진흥왕대에 道人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승관 설치를 전후하여 승관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활동상이 더욱 빈번히 찾아진다.

한편 非僧官 승직 중 大德은 진평왕대 뛰어난 戒行을 인정받은 智明에게 처음 수여되었는데, 이후 華嚴, 瑜伽 등 특정한 敎義에 탁월한 이해를 갖춘 승려에게 주어져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그들은 僧官과 달리 표면적으로 왕에 의해 임명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僧團의 필요에 의해 임명된 승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덕은 慈藏의 활동시기에 이르면 그 직임이 僧官의 首位를 차지한 大國統에 부여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 계율에 따른 교단정비 단행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非僧官 승직은 僧團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僧官에 임명되어 국가와 僧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으로 존속하였다.

주제어 : 僧職, 僧團, 僧官, 大德, 道人, 沙門道人, 內殿焚修僧, 行香, 敎團

## I. 머리말

신라 中古期의 시작인 법흥왕대 불교의 양상은 『三國史記』에서 “肇行佛法”으로, 『三國遺事』에서 “原宗興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법흥왕대 이전 불교 전래의 사실이 찾아진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불교가 ‘初傳(肇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차돈의 순교라는 극단적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도 법흥왕대를 불교의 ‘公認’ 단계로 규정하는 기존 견해들은 재고가 필요하다.<sup>1)</sup> 그럼에도 불교의 전래 과정 속에서 법흥왕대가 주목된 것은 이 시기에 출·재가자들의 다양한 활동상이 발견되고, 나아가 그들이 당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세력, 즉 ‘敎團’으로 형성,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2)</sup> 이렇듯 대승불교의 시기 이후 인도, 중국뿐 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출가자와 함께 재가신도의 존재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인식된 만큼 교단이란 승단과 재가신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가자들에 한해 역할과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다룰 것이므로 ‘僧團’이라 특기하였다.

한편 僧團에 대해서는 주로 僧官을 중심으로 그들의 불교계 및 국가에서의 역할, 개별 승려들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僧官의 범주를 왕명에 의해 임명된 혹은 왕실과 관련을 맺은

1) 崔光植[2007].

2) 이차돈 순교시기를 전후하여 군신들은 僧徒가 복색이 이상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할 정도로(『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 “王於是 召群臣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승려들이 신라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정도의 敎勢를 가진 집단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승관의 존재로부터 교단의 성립을 유추하는 등 敎團=僧團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安啓賢[1973] ; 허홍식[1987] 등).

승려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三國史記』 職官志 및 『三國遺事』 慈藏定律에 보이는 國統 이하의 僧官<sup>4)</sup> 이외에 왕실과 관계된 모든 승려를 僧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직관지가 정리된 시점이 신라 中代末~下代이므로 적어도 신라 中古期, 中代까지의 僧官이란 國統 등으로만 인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소지왕대 內殿焚修僧이라는 僧職이 발견되는 점,<sup>5)</sup> 법흥왕·진흥왕대에 道人 역시 찾아진다는 점 등을 통해 승관 설치 이전 이미 승단 내 다양한 승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승관 설치 이후에도 신라 중고기에 慈藏을 제외하고는 非僧官 승려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측면에서 승관이 敎團 혹은 僧團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역시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다. 특히 非僧官 승직 중 설치사실이 분명한 大德을 대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僧官과 非僧官 僧職의 임명과 역할의 차이 등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II. 僧職의 발생과 역할

- 
- 4)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下, “國統一人[一云寺主] 眞興王十二年 以高句麗 惠亮法師爲寺主 都唯那娘一人 阿尼 大都唯那一人 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 眞德王元年加一人 大書省一人 眞興王以安藏法師爲之 眞德王元年加一人 少年書省二人 元聖王三年 以惠英梵如二法爲之 州統九人 郡統十八人”; 『三國遺事』 卷4 義解5 慈藏定律, “新羅眞興王十一年庚午 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 又有小書省二人 明年辛未 以高麗惠亮法師爲國統 亦云寺主 寶良法師爲大都維那一人 及州統九人 郡統十八人等 至藏更置大國統一人 蓋非常職也 亦猶夫禮郎爲大角干 金庾信大大角干”.
- 5) 『三國遺事』 卷1 紀異1 射琴匣,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王]即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鳥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鳥去處尋之 … 時有老翁自池中出奉書 外面題云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 莫若不開 但一人死耳 日官秦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 書中云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好也 二人伏誅”.

아도에 의한 불교 전래 이후 신라에서 보이는 문헌상 최초의 僧職은 內殿焚修僧이다. 그의 존재는 소지왕대에 왕실에서 일찍이 불교가 신앙되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토착신앙 담당자의 경계대상이 되었던 점, 그리고 그의 주륙이 불교의 탄압에 견주어졌던 점 등을 통해<sup>6)</sup> 당대 僧團을 대표하는 존재로 생각된다. 그는 궁 안에 건립된 불당에서 향을 피우는 의식을 담당하였는데, 이의 설치시기는 소지왕의 일선군 행행 및 일선군과 관계된 행적을 통해 소지왕 당대로 비정할 수 있다.

- a) 5년(483) 冬10월에 왕이 一善界에 行幸하여 水災를 만난 백성을 위문하고 차등을 두어 곡식을 주었다.  
 8년(486) 春정월에 伊浪 實竹을 拜하여 장군으로 삼고, 一善界의 丁夫 3,000명을 징발하여 三年·屈山の 두 성을 고쳐 쌓았다.  
 10년(488) 2월 一善郡에 行幸하여 鰥·寡·孤·獨을 위문하고 차등을 두어 곡식을 주었다. 3월에 (왕이) 一善에서 돌아오며 지나는 州郡의 獄囚에 대하여 二死를 제외하고는 모두 놓아 주었다.<sup>7)</sup>

소지왕은 獻香과 治病을 바탕으로 한 아도 전래의 불교와 접촉하였고,<sup>8)</sup> 이와 동시에 일선군으로의 行幸을 통해 이 지역을 중심

- 6) 당대 신라 승려의 발생과 증가를 방증하는 자료로 앞서 언급한 『三國遺事』 射琴匣조와 함께 『新羅雲住山安國寺事蹟』(이하 『안국사사적』)이 참고된다. 이는 靜庵 訥訥이 1757년에 쓴 것으로, 후대의 사료이기는 하나, 『鷄林雜傳』이나 『三國遺事』의 기록과 부합되는 기사가 확인되므로 이를 단순한 허구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김상현[1999: 264]). 이 자료의 원문과 간략한 해제는 『新羅文化』6(1989)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때 주륙된 여러 승려는 內殿에 두어졌던 다수의 焚修僧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7) 이상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5年·8年·10年, “五年 … 冬十月 幸一善界 存問遭災百姓 賜穀有差 … 八年 春正月 拜伊浪實竹爲將軍 徵一善界 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 十年 … 二月 幸一善郡 存問鰥寡孤獨 賜穀有差 三月 至自一善 所歷州郡獄囚 除二死悉原之”.
- 8) 『三國遺事』 卷3 興法3 阿道基羅(『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 『海東高僧傳』 卷1 流通1 阿道·黑胡子·元表·玄彰에도 글자의 출입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수록됨)에 보이는 원사료인 『鷄林雜傳』의 내용에서는 獻香과 治病에 대한 에피소드가 목호자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

으로 형성된 일단의 불교신자 또한 인지하였을 것이 추측된다. 소지왕의 순행목적은 불교의 의도적인 전파로 보거나<sup>9)</sup> 혹은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확대된 영역에 대한 확인과 민심을 수습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보기도 한다.<sup>10)</sup> 물론 당대 고구려-신라 간 대립의 상황에서 볼 때 왕의 行幸은 후자의 견해와 같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아울러 위의 사료를 통해 왕의 行幸은 표면적으로 水害를 당한 백성에 대한 慰問과 보상, 慰撫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선군의 경우 지역적으로 대고구려 관계상 변경요충지로서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음이 사실이다.<sup>11)</sup> 그러나 이곳의 지역적 중요성은 소지왕대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유독 이 시기에 일선군 관련 내용이 빈출한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 이상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지왕의 行幸이 불교와 관련된 것은 동왕 10년의 射琴匣 사건 이후 동왕 22년, 그가 捺己郡, 古陞郡으로 행행하였던 점과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당시 捺己郡에 親고구려세력이 잔존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한다면<sup>13)</sup> 이 지역에도 이미 고구려로부터의 불교 전

---

도, 목호자와 관련한 다른 사료에서 일괄적으로 아도의 행적으로 기록된 점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는 전승의 정리과정에서 생긴 착종이다. 즉 목호자와 아도의 두 에피소드가 초기 불교전래승들의 대체적인 활동모습이었을 것임을 인식한 찬자에 의해 먼저 신라로 온 목호자의 행적으로 입전된 후 동일한 활동양상을 보인 아도에 대해 그 모습이 목호자와 비슷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辛善惠[2010: 171-172]).

9) 金杜珍[1985: 275-276].

10) 위영[2002: 117]. 반면 불교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崔根泳[1987: 14]).

11) 장창은[2004].

12)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22年, “秋九月 王幸捺己郡 郡人波路有女子 名曰碧花 年十六歲 眞國色也 其父衣之以錦繡 置舉幕以色絹 獻王 王以爲饋食 開見之 歛然幼女 怪而不納 及還宮 思念不已 再三微行 往其家幸之路經古陞郡 宿於老嫗之家 因問曰 今之人以國王爲何如主乎 嫗對曰 衆以爲聖人 妾獨疑之 何者 竊聞王幸捺己之女 屢微服而來 夫龍爲魚服 爲漁者所制 今王以萬乘之位 不自慎重 此而爲聖 孰非聖乎 王聞之大慙 則潛逆其女 置於別室 至生一子”.

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법흥왕대를 전후하여 순흥, 영주 등지에서 경주와 비슷한 수준의 불교유적이 발견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방증된다.<sup>14)</sup> 즉 소지왕은 일선군뿐 만 아니라 捺己郡, 古陁郡 등으로의 행행을 통해 불교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치된 內殿焚修僧은 소지왕 10년, 宮主와의 간통을 명목으로 伏誅되고 그뿐 만 아니라 많은 승려들이 誅戮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의 발생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었는데, 소지왕대 정치세력간 갈등으로 보는 견해와<sup>15)</sup> 천신신앙, 토착신앙 등과 불교의 사상적 대립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sup>16)</sup> 물론 이는 소지왕-지증왕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나아가 삼국 간 정치세력의 갈등양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분수승을 당시 신라에 수계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구려에서 온 승려가 등용되었을 것이고, 그가 신라 왕실의 분열을 도모하였다는 측면에서 고구려의 첩자로 보기도 한다.<sup>17)</sup> 첩자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도와 함께 고구려에서 온 侍者들 중 한 명으로, 外來僧이었다는 점은 짐작 가능하다.

그런데 射琴匣 사건에 日官 등 토착신앙의 담당자들이 개입한 점은 기존 사상체계와 불교와의 갈등을 상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시 焚修僧이 담당했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토착신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焚修는 焚香修道를 의미하는데,<sup>18)</sup> 소지왕대 아도의 獻香과 治病

13) 鄭雲龍[1994: 60].

14) 辛鍾遠[1992: 132-134].

15) 강은혜[1996]; 金杜珍[1999]; 김영남[2008]; 조한정[2012].

16) 崔光植[1983]; 조수학[1985]; 나희라[2005]; 김병곤[2003]; 신종원[2004]; 김재경[2007]; 崔光植[2007]; 채미하[2008].

17) 장창은[2005: 1-34]. 한편 당시 신라에 반고구려-靺鞨제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분수승을 백제와의 외교적 차원에서 내전으로 초빙한 승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영남[2008: 2]).

18) 焚修란 쫓을 사르고 부처님 앞에서 예참하는 수행, 또는 향을 사르고 예

사례는 당대 분수승의 설치와 분향의식의 設行으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에 아도를 통해 유입된 고구려 불교, 나아가 고구려를 통한 북위 佛敎界의 영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지왕대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 불교의 양상을 문헌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으나 이를 대신하여 고분벽화의 내용이 참고 된다. 이 중 焚香과 관련한 고분벽화로 쌍영총의 의식행렬도가 주목되는데,<sup>19)</sup> 조성연대는 5세기 중·후반으로,<sup>20)</sup> 내부에는 墓主 부부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불교, 도교 등 종교적 요소가 반영된 인물풍속도와 사신도 등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중 머리에 香爐를 인 인물을 선두로 승려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그린 현실 동벽의 벽화가 바로 의식행렬도이다.

이 의식은 行香을 표현한 것으로, 行香은 ‘향을 나누어 주는 의식’, 즉 향로를 받쳐 들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행향의식은 북위의 道安에 의해 처음 계율로 정해졌는데,<sup>21)</sup> 이후 亡者를 위한 齋를 지낼 때나 講經을 할 때 행향의식을 행하였다. 이렇듯 고구려에서 행향에 대한 문헌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쌍영총을 비롯한 안악3호분, 장천1호분 등 고분벽화에서 향로의 존재가 확인됨을 통해 亡者를 위해 행향 내지 분향의식이 設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구려의 불교의식과 그 의미는 아도를 통해 신라 왕실에 전해져 焚香이 設行되었고, 신라 下代를 거쳐 高麗에 이르기까지 焚香과 行香이 행해졌다.<sup>22)</sup> 이렇게 본다면 『三國遺事』의 射琴匣

---

배하는 것이다. 『百丈清規證義記』 卷2(卍續藏111, p.614a12)에 “이 僧衆들을 따라 향을 사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經을 외우고 기도를 올린다면, 부처님과 신령들이 도와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을 얻을 것이다(從此僧衆焚修 晨昏誦禱 佛神默佑 定獲嘉祥)”라고 하였다.

19) 쌍영총의 의식행렬도와 관련해서 김정희[2013]의 논고를 참고하였다.

20) 쌍영총의 편년에 대해서는 魏存成[1994]; 주영현[1994]; 전호태[2002]; 김일권[2008] 등 참고.

21) 水尾寂芳[1994: 111-117].

기록은 內殿焚修僧과 궁주의 伏誅라는 사건 이전에 신라 佛敎界에서의 분향의식의 시원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소지왕대에 망자 추선의식으로서의 분향이 신라 왕실에도 전해졌던 것인데, 이는 그간 왕실의 喪葬禮와 관련한 의식을 행하였을 토착신앙의 담당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상 소지왕대를 전후하여 왕실의 喪葬禮에 변화가 있었을 것임은 이후 지증왕 3년(502)의 순장금지와 동왕 5년(504)에 喪服法이 마련된 점을<sup>23)</sup> 통해서도 추측된다.

한편 소지왕대 분수승이라는 승직이 설치된 후 법흥왕대에 이르러면 구족계의 수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보이는 比丘, 沙彌와 함께 ‘道人’의 존재가 발견된다.

- b) 乙卯年八月四日聖法興大王節，  
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  
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  
□人等見記，<sup>24)</sup>

b)사료는 법흥왕 22년(535)에 제작된 「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이하 「川前里書石」 을묘명)으로, 이에 따르면 당대의 출가자는 比丘, 沙彌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沙彌의 경우 승려에 대한

- 22) 行香은 신라 하대 경에왕대에도 발견되며(『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哀王, “第五十五景哀王即位 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教之始”), 고려시대에는 망자추선의 때와 함께 왕이 복을 빌기 위해 行香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대표적으로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即位年, “幸法王寺 行香 還御毬庭 受群臣朝賀”; 『高麗史節要』 卷2 成宗 8年, “冬十二月 教曰 昔 唐太宗每於皇考妣忌月 禁屠殺 勅僧寺 限五日 焚修轉念 況寡人幼而卽閔 長又早孤 未酬罔極之恩 每軫追思之念 盍遵往轍 以伸予懷 可自今 太祖忌齋先考忌齋期五日 先妣忌齋期三日 焚修轉念 仍於是月 禁屠殺 斷肉膳 自後 遇太祖及考妣忌晨 必親詣寺行香 世以爲常” 등).
- 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3년·5년, “三年 春三月 下令 禁殉葬 前王薨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頒行”.
- 24) 「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이문기[1992]의 판독에 따랐다).

통칭으로 쓰이기도 하여,<sup>25)</sup> 이 시기 비구와 사미의 구분은 외형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sup>26)</sup> 고구려의 승려였던 惠亮이 居柒夫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음에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沙彌로 지칭하였기 때문이다.<sup>27)</sup>

그런데 비구에는 특별히 道人이 冠稱되어 있다.<sup>28)</sup> 도인이 승려를 가리키며, 중국 남조에서 빈번히 사용된 호칭라는 점은 일찍이 밝혀져,<sup>29)</sup>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 佛敎의 南朝的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도 직접적 논거로 사용되었고, 고구려에서도 ‘高麗道人’의 존재가 보여 일찍이 승려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일본의 사례에서는 道人이 승려와 동일어로서 單稱되었던 것에 반해 b)사료에서는 道人과 함께 比丘라는 호칭, 그리고 ‘僧’ 역시 병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道人이 승려에 대한 범칭이었던 중국, 고구려 등과는 달리 신라에서는 일정한 직임을 가진 승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c-1) 見道人□居石窟□□□□刻石誌辭<sup>30)</sup>

c-2) 于時隨駕沙門道人法藏慧忍<sup>31)</sup>

25) 『三國遺事』卷3 興法3 阿道基羅, “時人不知僧名而云阿頭多麼 多麼者乃鄉言之稱僧也 猶言沙彌也”.

26) 『高麗圖經』에 언급된 바, “沙彌는 갈색의 베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구죽계를 받으면 붉은색의 가사를 착용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외형상의 차이는 특히 옷에서 구별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여성구[2014: 43]).

27) 『三國史記』卷44 列傳4 居柒夫, “居柒夫少跡弛有遠志 視髮爲僧 遊觀四方 便欲覘高句麗 入其境聞法師惠亮開堂設經 遂詣聽講經 一日 惠亮問曰 沙彌從何來 對曰 某新羅人也”.

28) 辛鍾遠[1992: 188].

29) 북위대 僧官인 道人統이 沙門統이라고도 불렀다는 점에서 당시 道人과 沙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30) 『북한산비』(노중국[1992a]의 판독에 따랐다).

31) 『마운령비』(이도학[1992: 120]의 판독에 따랐다) ; 『황초령비』(노중국[1992b]의 판독에 따랐다).

진흥왕 29년(568)을 전후하여 건립된 「磨雲嶺新羅眞興王巡守碑」(이하 「마운령비」)와 「黃草嶺新羅眞興王巡守碑」(이하 「황초령비」)에는 진흥왕의 巡狩에 함께한 ‘沙門道人’이, 그리고 그보다 이른 시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이하 「북한산비」)에는 ‘道人’의 예가 발견된다.<sup>32)</sup> 道人이 출가자를 의미하는 것임은<sup>33)</sup> 앞서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범칭이 아닐 가능성은 ‘사문도인’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즉 출가자의 범칭인 沙門에 道人이 병렬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比丘, 僧과의 병렬 사례와 함께 생각할 때 도인이 일정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그들의 기재위치가 大等群을 비롯한 여타 隨駕人의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진흥왕의 巡狩에서 그들이 차지한 위상과 역할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대체적인 견해는 새로운 척경지의 민심수습과 불교의 弘布를 위해 진흥왕과 동행한 것으로 보면서,<sup>34)</sup> 순수시 제사 등을 통해 內外諸臣과의 會盟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고 해석한다. 형식상으로 보면 이전의 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道人의 참여는 회맹의 정신이 불교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회맹에서 가지는 승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5)</sup> 그런데 이때 제의와 관련하여 隨駕人 등과 함께 占人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d) 于是隨駕沙門道人法藏慧忍 太等喙部居柁夫智伊干內夫,

32) 辛鍾遠[1987: 12-13]은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에도 판독되지 않으나 道人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이를 ‘도인’으로 판독한 연구자도 있다(今西龍[1922]; 葛城末治[1935]; 許興植[1984]).

33) 「북한산비」에 나오는 道人을 南朝 陶弘景 撰 『養性延命錄』 또는 남북조시대의 것으로 간주되는 道經인 『洞眞太上太霄琅書』 등에 빈출하는 신이한 道術을 지닌 사람, 도교 수련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아, 도인이 결코 불교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김태식[2004]: [2007: 122-127]).

34) 노용필[1996]; 최영성[2014].

35) 辛鍾遠[1987: 13].

智伊干沙喙部另力智迺干喙部服冬智大阿干比知夫知及干,  
 未知大奈末及珎夫知奈末執駕人喙部萬大舍沙喙部另知,  
 大舍裏內從人喙部沒 次大舍沙喙部非尸知大舍駙人沙喙  
 部爲忠知大舍亘人喙部與難大舍藥師薦支次小舍奈夫通典,  
 本波部加良知小舍□□本波部莫沙知吉之及伐斬典喙部夫,  
 法知吉之裏內□□□□□□名吉之堂來客裏內客五十外,  
 客五十□□□□□□喙部悲智沙干助人沙喙部舜知奈末」<sup>36)</sup>

앞서 제시한 세 개의 진흥왕순수비 중 판독이 가장 수월한 「마운령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7인의 대등군의 뒤에 執駕人을 비롯하여 裏內從人 등과 함께 亘人이 등장한다. 이때의 亘를 占의 이체자로 보아 占人으로 판독한다면,<sup>37)</sup> 왕실 소속 卜師로 日官과 같은 존재 혹은 내성 소속 供奉卜師의 전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sup>38)</sup> 亘가 祭器를 가리키는 酒壺의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sup>39)</sup>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제의 등을 주재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즉 순수시 동반되는 각종 의례와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은 亘人이 포함된 執駕人 이하의 인물들이 맡았고, 道人은 참여만으로도 진흥왕의 佛敎弘布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40)</sup> 즉 道人은 출가자들을 가리키는 범칭이 아닌, 僧團을 대표하며 여러 지역의 승려들을 방문, 위무하는 역할을 한 僧職이었다.

36) 「磨雲嶺碑」(이도학[1992: 120]의 판독에 따랐다).

37) 李蘭映 編[1968] ; 辛鍾遠[1992: 50].

38) 이문기[1983: 72] ; 이도학[1992 : 124-125].

39) 이도학[1992: 124-125].

40) 曹凡煥[2013: 153].

### Ⅲ. 僧官의 설치와 大德

진흥왕대에 이르면 僧團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여러 僧職들이 설치된다. 대표적인 僧職으로 僧官이 주목되는데, 진흥왕 11년(551) 大書省을 시작으로 동왕 12년에는 國統, 都唯那娘, 大都唯那 등이 설치되었다. 國統 이하의 체계적인 僧官 설치는 고구려에서 귀부한 惠亮을 國統으로 삼아 진행되었던 점에서 고구려 佛教界, 나아가 북조불교의 영향 하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고구려 僧官制의 양상을 유추하기도 한다.<sup>41)</sup> 다만, 중국의 僧官은 승려들의 비행에 따른 통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반면, 신라는 僧官 설치의 배경으로 언급될 만한 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아 중국과는 달리 불교 弘通의 토대 혹은 榮典의 의미에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sup>42)</sup> 그런데 僧官 설치 기사 이후 이들의 실질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대를 전후한 시기까지 정기적인 임명 기사조차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僧官의 설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를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라고 보기에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다루고 있는 僧官 설치 기사가 비교적 자세하고, 다른 제도에 비해 기재된 비중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임명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僧官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의문은 앞서 살펴본 진흥왕순수비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즉 진흥왕이 순수시 동행한 승려가 僧官이 아닌 (沙門)道人이라고 하는 非僧官 승려였던 것이다.<sup>43)</sup> 이때

41) 정선여[2007].

42) 이흥직[1971] ; 井上光貞[1965] ; 中井眞孝[1971] ; 이기백[1986] ; 蔡印幻[1982] ; 이수훈[1990] ; 박남수[2013a] ; 박남수[2013b].

43) (沙門)道人을 僧官으로 보기도 하고(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眞興二碑攷』 : 崔光秀 譯[1976: 197] 번역 참고), 오히려 僧官이나 史書에 보이는

非僧官 승려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진흥왕대 설치된 國統 이하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승려를 가리킨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운령비」에는 고구려에서 온 혜량이 국통으로 임명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居柒夫가 동행하여<sup>44)</sup> 승관에 대해 왕실 및 교단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僧官이 아닌 (沙門)道인이 순수에 동행하였다는 점은 僧官과 非僧官 승려 간 역할의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라 중고기에 임명된 僧官의 사례와, 임명의 기사는 없으나 여타의 기사를 통해 당대의 僧官으로 보이는 승려들, 그리고 그들의 예상되는 활동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僧官	인명	활동시기	비고
(大)國統	惠亮	진흥왕대	
	慈藏	선덕여왕대	
	惠訓	선덕여왕대	慈藏이 대국통으로 되면서 동시에 혜훈이 국통이 됨
大都維那	寶良	진흥왕대	
	無名	선덕여왕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선덕여왕대 1인 增置됨
都唯那娘	阿尼	진흥왕대	
大書省	安藏	진흥왕대	
	無名	선덕여왕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선덕여왕대 1인 增置됨

[표] 신라 中古期の 僧官과 활동시기

승려보다 명망이 높은 인물로 보기도 한다(辛鍾遠[1992: 192-194]).

44) 거칠부를 비문의 찬자로 보기도 하고(曹凡煥[2013]; 최영성[2014: 152-153]), 隨駕道人을 찬자로 보기도 한다(유득공, 『冷齋集』 卷5, p.23b, 「新羅眞興王北巡碑」, “注曰 文多缺 有曰隨駕沙門道人 法藏慧忍 意即撰書者”(『한국문집총간』 卷260, p.89); 최남선[1973: 169]).

위의 [표]에서는 진흥왕대 僧官이 初置된 후 선덕·진덕여왕대에 增置와 함께 大國統이라는 首位의 임시직이 두어지는 흐름이 보인다. 國統의 경우, 僧統 또는 寺主라고 하여 중고기 황룡사의 사주를 모두 國統으로 보기도 하지만,<sup>45)</sup> 『三國遺事』 皇龍寺丈六에 國統과 寺主가 분리 표기되어 있으므로<sup>46)</sup> 國統으로 지칭된 慈藏과 惠訓만이 당대 國統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진평왕대에는 僧官의 임명추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발견된다. 이때 僧官의 활동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시기 家僧的 非僧官 승려가 僧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진평왕대에 梁 武帝의 불교정책과 관련된 南朝的 성격의 불교적 흐름이 신라 사회에 수용되었던 것이 주목된다.<sup>47)</sup> 즉 중국 남조의 僧官制는 국가 권력의 僧團 개입을 막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편으로,<sup>48)</sup> 승관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僧政이나 왕실과의 관계에 있어 북조에 비해 강력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惠亮에 의해 신라에 설치된 北朝的 僧官制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진평왕대 활동한 대표적 승려인 圓光과 安舍 등은 敎團 및 국가에 대해 다양한 소임을 맡았음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던 북조적 僧官制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圓光의 경우 “온 나라가 그를 극진히 받들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맡기고 교화하는 도리를 물었으니, 일은 비단옷을 입은 관리와 달랐으나, 함께 나라돌보기를 청하니”라고 한 평가를 통해<sup>49)</sup> 僧官의 직임은 말지

45) 이기백[1986: 60-61].

46)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丈六, “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慈藏 國統 次國統惠訓 次廂律師云”.

47) 원광은 중국 유학 당시 梁 武帝의 家僧이었던 僧旻의 제자와 교류한 사실이 있으므로(『三國遺事』 卷4 義解5 圓光西學) 그를 통해 습득한 家僧을 비롯한 중국 남조 불교계의 양상을 신라에 전하였을 것이다(辛善惠[2006]).

48) 中井眞孝[1971: 13].

49) 『三國遺事』 卷4 義解5 圓光西學, “一隅傾奉 皆委以治方 詢之道化 事異錦衣 請同觀國” 이때 ‘錦衣’의 번역이 다양한데, 이를 금의환향으로 보거나(강인구 외[2003: 37]), 금의를 착용한 고귀한 신분, 즉 관리로 본 견해로 대

않으면서 높은 위상을 가졌던 것이다. 안함 역시도 弘法을 펼친 聖人으로서 평가된 점에서 그들의 위상이 짐작된다.<sup>50)</sup>

이러한 진평왕대 佛敎界 상황 속에서 非僧官 승직으로서 ‘大德’이 初置된다.

e-1) (진평왕 24년, 602) 9월에 고승 智明이 入朝使 上軍을 따라 돌아왔다. 왕이 明公의 戒行을 존경하여 大德을 삼았다.<sup>51)</sup>

e-2) 진평왕 24년 9월에 入朝使를 따라 돌아왔다. 왕은 그의 인품을 우러러 사모하고, 계율을 추앙하고 귀중히 여겨 大德으로 포상하고 가까이 오기를 권하였다. … 뒤에는 大大德이 되어 우뚝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마친 곳은 알 수가 없다.<sup>52)</sup>

大德은 진평왕대 단 한 건의 僧官 임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등장한 僧職으로, 신라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道人的 경우 법흥왕대~진흥왕대 어간을 지나면 신라 하대까지 보이지 않아 하나의 시대적 유형으로 파악되는 것과는 다르다.<sup>53)</sup> 大德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에서 존칭적 의미를 지녔던 점을 근거로,<sup>54)</sup> 왕의 자문을 담당한 승려로 보거나 나아가 僧官의 하나로 해석하기도 한다.<sup>55)</sup> 또한 大

---

별된다(村上四男[1995: 16] ; 최광식·박대재 역주[2014: 337]). 원광의 귀국 시 온 나라가 환영하였다는 기록과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을 지칭하는 錦衣의 본뜻을 토대로 한다면 후자의 해석을 취함이 옳다.

50) 『海東高僧傳』 卷2 流通2 安含, “入朝始與西域三藏 手派眞源 吹法螺而雨法兩河潤海陬 眞弘法之聖人字也”.

5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年, “九月 高僧智明隨入朝使上軍還 王尊敬明公戒行爲大德”.

52) 『海東高僧傳』 卷2 流通2 智明, “以眞平王二十四年九月 隨入朝使還國 王欽風景仰 推重戒律 褒爲大德 以勸方來 … 後加大德 蔚居酸秩 不知所卒”.

53) 辛鍾遠[1987: 12].

54) 『佛光辭典』, “於印度時 爲對佛菩薩或高僧之敬稱 又比丘中之長老 亦稱大德 … 然於隋唐時代 凡從事譯經事業者 特稱大德 … 此外 統領僧尼之僧官 亦稱大德”.

55) 金福順[2002].

德이 고려 佛敎界에서 僧階化되는 점에서 신라 大德은 그 前史로서 일반 승려와는 구분되는 위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56)</sup>

그런데 大德의 역할에 대한 구명에 앞서 이것이 僧官과 구별된 僧官職과 大德을 겸임한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慈藏과 義安의 경우, 그들은 大德으로 칭해짐과 동시에 大國統, 大書省 등의 僧官으로 임명되었다.<sup>57)</sup> 즉 자장은 대덕이면서 대국통에 임명되었고, 의안은 대덕이면서 대서성에 임명된 것이다. 이렇듯 大德이 僧官과 겸임되었다는 점은 이것이 僧官과는 다른 체계의 僧職이었음을 보여준다.<sup>58)</sup> 이는 신라 하대의 예이긴 하지만 대덕의 성격이 승관과 구분되는 ‘爵’으로 인식된 사례로서 방증된다.

f-1) 王德其言 爵爲大德 賜金一百三十兩<sup>59)</sup>

f-2) 新羅官爵凡十七級 其第四曰波珍噲 亦云阿珍噲也<sup>60)</sup>

f-3) 大德慈藏 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sup>61)</sup>

f-1)에서 경문왕은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 준 範敎師에게 爵으로서 大德號를 하사하였다. 이때 『三國遺事』의 ‘爵’의 용례는 f-2)와 f-3)과 같이 관직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대덕은 국가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승관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되

56) 김윤지[2015: 10-14].

57) 자장은 『三國遺事』 卷4 義解5 慈藏定律에서 “大德慈藏”이라 칭해졌는데, 이것이 조목의 도입부에 기재되었다는 점은 자장이 이후 國統, 大國統으로 임명되에도 그의 역할과 위상을 대표하는 것은 大德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大德의 역할이 승관 임명 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의안은 『三國遺事』 卷5 神呪6 明朗神印에서는 大德으로,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에는 大書省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여, 그 역시 두 僧職을 함께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58) 大德이 僧官으로 임명되는 것을 관료화되는 사례로 파악하기도 한다(金福順[2002]).

59) 『三國遺事』 卷2 紀異2 四十八景文大王.

60)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觸滅身.

61) 『三國遺事』 卷4 義解5 慈藏定律.

지 않는다.

한편 진평왕대에 지명은 大德으로 임명되고, 후에는 大大德에 오른다. 진평왕이 그를 大德으로 임명한 이유는 계율에 정통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나는데, 지명을 大德으로 모신 배경으로 戒律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교화를 기대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海東高僧傳』에서 그의 행적에 대해 ‘지혜의 달로서 밝히고 덕행의 바람으로서 떨치니, 승려와 속인들의 규범이 되고 교훈이 되었다’고 한 논평은<sup>62)</sup> 이러한 그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렇게 본다면 진평왕은 僧團뿐만 아니라 在家信徒를 대상으로도 계율 등의 弘布를 위해 지명을 발탁하고 大德의 호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대덕으로 임명한 주체가 왕으로 표현되어, 승관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불교계에서의 대덕의 역할과 임명에 대한 다음의 사료가 참고 된다.

- g) 魏晉의 시기에 율본인 羯磨文을 번역한 사람들을 大德僧이라 불렀다. 經에서는 大德은 하늘에서 낸다고 하였고, 論에서는 여러 大德은 신통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진기는 사사료이 승려 중에서 어진 이를 가리켜, 대부분 大德이라 칭하였다. 나라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었다. 唐 代宗에 이르러, 내전에서 향 1합을 내어 서명사의 故 上座 大德 道宣에게 보내어 내전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 내용은) 처음으로 史傳에 보인다.<sup>63)</sup>

즉 唐代 이전 大德은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대상으로 임명하였지만, 이들은 僧官과 같이 나라(왕)에서 소임을 부여한 직임은 아니었다. 신라에서도 지명 이후 선덕여왕대에 두 명의 대덕 임명

62) 『海東高僧傳』 卷2 流通2 智明, “炤之以慧月 振之以德風 緇素之徒 是曩是訓”(辛鍾遠[1992: 278-279]).

63) 『大宋僧史略』 卷下 賜師號(德號附)(대정장54, p.249b29), “魏晉之世 翻譯律本 羯磨文中 皆曰大德僧 經云 爲大德天生 論云 諸大德有神通者 及諸傳紀私呼僧中賢多 多云大德 非國朝所補也 至唐代宗 丙出香一合 送西明寺故上座大德道宣掌內 始見史傳”.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때 대덕 임명의 실질적 주체가 왕이 아니었음이 주목된다.

h) 이때에 중국에서 돌아온 비구로 智穎, 乘固라는 이가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배워와 청구를 빚냈다. 이에 그들의 높은 덕(경지)을 충애하시어 발탁하여 大德으로 삼았다. … 이는 모두 임금의 綸旨로써 발탁하는 형식을 빌었는데, 명예가 金牌보다 무거웠으며, 제석천의 寶網이 서로 걸려 있는 것과 같아서 빛이 玉刹에서 무르녹았다. … 드디어 위나라 蘧瑗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해(49세)를 넘겨 노나라 공자가 주역을 배웠다는 나이(50세)가 된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 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며, 마침내 기한을 7년으로 정했다. 그들 가운데 간혹 본업이 돈독하여 시기에 매우 민첩하며, 덕망이 老成人에 들어맞은 이들에게는 곧 뛰어난 인재들이 홀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고, 대개 기이한 인재들의 奇辯을 장려하였으며, 이에 別字를 더하여 후생들을 복되게 하였다.<sup>64)</sup>

h)사료는 신라 下代에 작성된 최치원의 「新羅伽伽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로, 이에 따르면 선덕여왕대에 두 명의 大德이 임명되었고, 이들은 50세 이상 7년 연한의 직임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大德 중에서 더욱 덕망이 있는 노성한 大德은 別大德으로 삼았다고 하여,<sup>65)</sup> 지명이 임명되었던 大大德과 동일한 위상으로서 이 시기에 대덕의 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사례와 같이 왕이 대덕을 임명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형식일 뿐 실상은 승단 혹은 교단의 필요에 의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4) 『東文選』卷64 新羅伽伽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時有觀光比丘 曰智穎 曰乘固 去探赤水 來耀青丘 於是寵彼上乘 擢爲大德 … 斯皆假王給之所擢 舉重金牌 侔帝網之相含 光融玉刹 … 遂制過衛瑗知非之歲 時滿魯丘學易之年 始許遷喬 終期七稔 其或業敦時敏 德協老成 則令翺 鸚獨飛 盖獎宋鷄奇辯 仍加別字 用慶後生”.

65) 別大德은 신라 하대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華嚴經社會願文」, 「別大德 賢俊」; 「海印寺妙吉祥塔誌」, 「海印寺 別大德 僧訓」(이상 최영성 역[1999: 225·312])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선덕여왕대 大德 임명 양상은 앞서 진평왕대의 大德 임명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sup>66)</sup> 즉 敎團의 필요에 의해 임명된 大德은 慈藏의 시기에 僧官과 겹쳐지는 것이다. 慈藏은 大德이자 大國統으로서 敎團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sup>67)</sup>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계율에 능통한 大德을 활용하여 僧官의 본래 기능인 승정 통제 및 敎團 정비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大德이 僧官을 겸하게 되면서 h)사료에서와 같이 연한과 임명에 일정한 규정이 생기고, 계율뿐만 아니라 敎團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승려를 大德으로 삼아 때로는 僧團 내 僧職으로 역할을 하고, 때로는 僧官에 임명되어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활약하는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sup>68)</sup>

한편 大德號의 수여 의미는 9세기 초 애장왕대 조성되었으나 元曉의 활동 당대상을 보여주는 「高仙寺誓幢和尚碑」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기록의 작성자인 萬善和上은 萬善寺에서 입적한 安曇으로 볼 수 있어,<sup>69)</sup> 다음의 사료는 선덕여왕대에서 멀지 않은 시점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i) 萬善和上이 기록한 가운데 전하기를, “佛法에 능한 자가 9인이 있어 모두 大德으로 일컬어졌다”라고 하였다. 대사가 제일 앞에 있으니, 아마도 불교를 도운 큰 장인이었을 것이다.<sup>70)</sup>

66) 지명의 大大德 임명의 시기는 慈藏의 大國統 임명 시기와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67) 『三國遺事』 卷4 義解5 慈藏定律와 같은 책 卷3 塔像4 皇龍寺丈六에 따르면 慈藏은 國統과 大國統의 僧官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大德-大大德의 관계와 동일하다.

68) 다만 중국의 경우 당 숙종은 乾元 연간(758-760)에 전국 25개 사찰에 각기 臨壇大德, 引駕大德, 供奉大德, 講論大德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 때 臨壇大德의 임명으로부터 大德이 국가에서 임명하는 僧官의 성격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大宋僧史略』 卷下 賜師號(대정장54, p.249c9), “大曆六年辛亥歲四月五日 勅京城僧尼 臨壇大德各置十人 以爲常式 有闕即填 此帶臨壇 而有 大德二字 乃官補德號之始也”).

69) 南東信[1992]; 金福順[2012: 12].

이를 통해 보면, 원효는 佛法能者로 대덕에 임명되었는데, 그 이외에도 8명의 대덕이 두어졌고 그들은 모두 毗讚玄風之大匠이었다. 즉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덕이 이전시기에 계율 능통자라는 의미에서 教團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승려를 가리키는 僧職으로 의미가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慈藏 이후 大德이 瑜珈, 華嚴 등 특정 교의를 冠稱하는 사례가 찾아져 그 성격의 구체적인 분화 양상이 발견된다.

- j-1) 神印大德 明朗을 명하여 임시로 密壇을 세우고 비법으로 기도 하니 국난을 면하였다.<sup>71)</sup>  
 文武王이 듣고 두려워하여 (明朗) 스님을 청하여 비법으로 기도하니 이로 인하여 (그는) 神印宗祖가 되었다.<sup>72)</sup>  
 j-2) 瑜珈祖 大德 大賢은 남산 葺長寺에 거주하였다.<sup>73)</sup>

明朗과 大賢은 각각 神印大德(神印宗祖), 瑜珈祖로 불릴 만큼 密教, 瑜珈 등에 능통한 宗祖의 격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라 하대에까지 이어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頭陀山 三和寺 철불의 명문에서도 “華嚴業決言大大(德)”이라는 大德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는 9세기 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화엄학승으로, 화엄이라는 특정 교의에 능통한 결언에게 大德號가 수여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그간 승관이 교단 혹은 승단 내에서 대표적인 존재로서 불교 弘通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으나, 道人이나 圓光, 安曇 등의 행적을 통해 실상 신라 불교계에서 非僧官 승려가 주도적으

70) 「高仙寺誓幢和上碑」, “萬善和上 識中傳□ 佛法能者有九人 皆稱大□ 大師在初 蓋是毗讚, 玄風之大匠也”. 이때 大□를 대덕으로 본 견해에 따른다 (金福順[2012: 8-12]).

71) 『三國遺事』卷4 義解5 義湘傳教, “命神印大德明朗 假設密壇法讓之 國乃免”.

72) 『三國遺事』卷5 神呪6 明朗神印, “文武王聞之懼 請師開秘法讓之 因茲爲神印宗祖”.

73) 『三國遺事』卷4 義解5 賢瑜珈海華嚴, “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葺長寺”.

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非僧官 승려의 범주도 단지 승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승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大德과 같이 僧團의 필요에 의해 두어진 僧職을 가진 승려를 포함하는 것으로, 승단 내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僧職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IV. 맺음말

신라 중고기 僧團의 양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僧官이 僧團뿐 만 아니라 왕실과 교단의 관계, 불교 弘通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신라 불교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련의 僧官 임명의 사례 이외에도 기록에 보이는 승직들을 승관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진흥왕대 승관 임명을 전후하여 보면, 실상 신라 불교계에서 非僧官 승려 역시 두드러지는 활동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非僧官 승려는 소지왕대 內殿梵修僧, 법흥왕·진흥왕대에 道人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승관 설치를 전후하여 승관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활동상이 더욱 빈번히 찾아진다.

한편 非僧官 승직 중 大德은 진평왕대 뛰어난 戒行을 인정받은 智明에게 처음 수여되었는데, 이후 華嚴, 瑜伽 등 특정한 敎義에 탁월한 이해를 갖춘 승려에게 주어져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그들은 僧官과 달리 표면적으로 왕에 의해 임명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僧團의 필요에 의해 임명된 승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덕은 慈藏의 활동시기에 이르면 그 직임이 僧官의 首位를 차지한 大國統에 부여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계율에 따른 교단정비 단행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非僧官 승직은 僧團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僧官에 임명되어 국가와 僧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으로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강인구 외

[2003] 『역주삼국유사Ⅳ』, 이회문화사.

金杜珍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김병곤

[2003]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金福順

[2002]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12] 『한국금석문집성』12, 한국국학진흥원.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김일권

[2008] 『고구려의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김재경

[2007]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나희라

[2005]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노용필

[1996]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일조각.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2004] 『三國遺事 새로 읽기(1)』, 일지사.

이기백

[1978] 『신라시대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李蘭暎 編

[1968]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學校出版部.

이흥직

[1971]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전호태

[2002] 『고구려고분벽화연구』, 사계절.

정선여

[2007] 『고구려불교사연구』, 서경문화사.

주영현

[1994] 『고구려벽화무덤의 편년에 관한 연구』, 백산자료원.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崔光植

[2007]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광식·박대재 역주

[2014] 『삼국유사2』, 고려대학교출판부.

최영성 역

[1999] 『최치원전집』2, 아세아문화사.

崔完秀 譯

[1976] 『秋史集』, 현암사.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亞細亞文化社.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井上光貞

[1965] 『日本古代國家の研究』, 岩波書店.

村上四男

[1995] 『三國遺事考證』 下之二, 塙書房.

강은혜

[1996] 「<射琴匣> 설화 연구」, 『어문학』58.

金杜珍

[1985] 「신라 상고대말 초전불교의 수용」,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김영남

[2008] 「신라 소지왕대 <射琴匣 사건>의 역사적 이해」,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지

[2015] 「고려 광종대 승계제의 시행과 佛敎界의 재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2013] 「쌍영총 의식행렬도 벽화의 도상과 성격」, 『강좌미술사』41.

김태식

[2007] 「方士로서의 김유신」, 『新羅史學報』11.

南東信

[1992] 「高仙寺誓幢和上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노중국

[1992a]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b] 「黃草嶺新羅眞興王巡守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박남수

[2013a] 「신라 중고기초의 僧政과 寺主」, 『新羅文化』42.

[2013b] 「신라 大道署의 정비과정과 승정체계의 변화」,  
『한국사상사학』44.

辛善惠

[2006] 「신라 중고기 불교계의 동향과 僧政」, 『한국사학보』25.

[2010] 「신라의 불교 전래와 교단의 확립」, 『불교연구』33.

辛鍾遠

[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남조불교와 한일관계」,  
『한국사연구』59.

安啓賢

[1973] 「三國時代 初期 佛敎敎團 形成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敎論文集』12-人文·社會科學篇.

여성구

- [2014] 「신라승의 수계와 승적」, 『新羅史學報』31.  
위영
- [2002] 「신라 初傳佛敎의 展開過程 檢討」, 『新羅文化』20.  
이도학
- [1992] 「磨雲嶺 眞興王巡狩碑의 近侍隨駕人에 관한 檢討」,  
『新羅文化』9.
- 이문기
- [1983] 「신라 중고의 국왕근시집단」, 『역사교육논집』5.  
[1992] 「蔚州川前里刻石」,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Ⅱ,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수훈
- [1990] 「신라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釜大史學』14.
- 장창은
- [2004] 「신라 자비-소지왕대 축성, 교전지역의 검토와 그 의미」,  
『新羅史學報』2.  
[2005] 「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關係와 政治變動」, 『史學研究』78.  
鄭雲龍
- [1994]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15.
- 曹凡煥
- [2013] 「眞興王巡狩碑에 대한 몇 가지 疑問과 새로운 理解」,  
『新羅史學報』27.
- 조수학
- [1985] 「射琴匣 설화 연구」, 『인문연구』7.
- 조한정
- [2012] 「신라 소지왕대의 정치적 변동」, 『한국학연구』27.
- 蔡印幻
- [1982] 「신라 僧官制의 설치의의」, 『佛敎學報』19.
- 崔光植
- [1983] 「新羅의 神宮 設置에 대한 新考察」, 『한국사연구』43.  
[1985] 「異次頓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1.  
[1991] 「新羅의 佛敎 傳來, 受容 및 公認」,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12.

崔根泳

[1987] 「한국고대의 천신신앙에 대한 고찰」,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최영성

[2014] 「진홍왕순수비의 재검토」, 『민족문화』43.

허홍식

[1987] 「신라 佛敎界의 조직과 행정제도」,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8.

今西龍

[1922] 「昌寧碑」, 『考古學雜誌』12-11.

水尾寂芳

[1994] 「行香について」, 『天台學報』36.

中井眞孝

[1971] 「新羅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について」, 『朝鮮學報』59.

## Abstract

# Establishment of the monk's duty(僧職) and the monk's order(僧團) in the Mid-Ancient Period of Silla

Sin, Sun Hye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

In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aspects of the monk's order(僧團) in the Mid-Ancient Period of Silla,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僧官) has been considered a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Silla's Buddhism not only engaging in the monk's order, but also in relationship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buddhist order(教團) as well as in the promulgation of Buddhism. In this sense, not only the serial cases of nominated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shown in the 『Samguksagi』(三國史記) or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but also the other recorded monk officials have been regarded as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for discussion. However, the nomination processes of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in the era of King Jinheung prove that in fact, not nominated as an official(非僧官) monks have performed conspicuous activities as well. Not nominated as an official(非僧官) are represented by Naejeonbunsuseung(內殿焚修僧) in the era of King Soji and by Doin(道人) in the era of King Beopheung and King Jinheung, whose positions became higher than those of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or whose activities appeared more frequent around the time when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was established. Meanwhile, Daedeok(大德), one of not nominated as an

official(非僧官) monk, was granted for the first time to Jimyeong(智明) whose good understanding of religious precepts(戒行) was recognized as outstanding in the era of King Jinpyeong, and it existed until the end of the Silla era with being granted to the monks who have shown excellent understanding of specific teachings such as Hwaeom(華嚴) or Yuga(瑜伽). It is proven that differently from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they seemed to be nominally appointed by the king while they were appointed actually by necessity of the monk's order. In the meantime, the title Daedeok(大德), during the period of Jajang(慈藏), was granted to the rank Daeguktong(大國統) that was the highest rank among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which was justified by the State as legitimate legitimacy of the buddhist order(教團) restructuring based upon the religious precepts. In this way, not nominated as an official(非僧官) monk were playing crucial roles within the monk's order and at times, were appointed as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 subsisting with coordinating fun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monk's order.

**Key Words :**

the monk's duty(僧職), the monk's order(僧團), the monk's government official(僧官), Daedeok(大德), Doin(道人), Naejeonbunsuseung(內殿焚修僧), ceremony of burning incense(行香), the buddhist order(教團)